◇상륜스님

◇상덕스님

◇능인스님

◇경륜스님

◇각우스님

◇능광스님

◇자혜스님

비구니 스님들 '복지 맹활약'

섬세함 -전문지식 등 두루 갖춰
지도자상 받고 우수시설 평가도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살행을 펼쳐오던 비구니 스님들이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를 맡아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이 21일 서울시로부터 제23회 서울청소년지도자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18일 문을 연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에 자혜스님이 선임됐다. 또 각우스님이 관장을 맡고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서울시 평가 최우수 복지관에 선정되는 등 수차례 우수복지시설에 선정되었으며,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원장에는 지난 3월 능광스님이 중책을 맡았다.

3년동안 활발한 지역복지 활동을 펼쳐 온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은 지난해부터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각각 1반씩 운영하면서, 일순간의 잘못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바로서기 교실', 특수학급지도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대명소인 탑골공원에서 노인복지를 책임지게 될 자혜스님은 독일 총지사 주지를 역임하고 올해 중앙승가대 복지학과를 졸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에 임명돼 무료급식,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의료서비스, 어르신 자원봉사 및 정보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98년 서울시 1등급 복지관 선정, 99년 서울시 우수복지관 표창, 2000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 선정 등 모범적인 복지활동을 펼쳐온 삼전복지관장 각우스님은 200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선정된 청소년 집단 따돌림 예방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왕따 상담실(www.cyberwangdda.or.kr)'을 최근 개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앙승가대와 이화여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능광스님은 나눔의집 원장 및 위안부역사관 관장을 맡아, 법인사무국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을 투명화하는 등 전문화된 복지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6년동안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상륜스님,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인 목동청소년회관장 경륜스님, 국내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 1년만에 안착시킨 능인스님 등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성공적으로 복지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니 스님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데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보태져 운영을 알차게 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불교복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다, 비구니 스님들이 복지사업을 수행과 보시행의 방편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사 뒤편에 신축중인 삼성생명 수송동 사옥(오른쪽)이 사찰문화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삼성생명 수송사옥 사찰환경 피해우려"
조계사 건축시정 촉구

조계사가 조계사 뒤편에 신축중인 삼성생명 수송동 사옥이 사찰문화환경에 피해를 입힌다며 삼성생명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생명 사옥의 외벽을 빛의 반사가 없는 재질로 외장을 해야 하며, △특히 뾰족한 각을 이룬 15층 16층 돌출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삼성생명 사옥의 조경이 전통 문화의 미를 갖춤으로써 문화벨트와 조화를 이루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2개층 축소는 고려하겠으며, 유리 외장은 반사율이 적은 유리로 교체하되 이를 전면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 일주문 내년봄 완공

건물매입등 진행 순조

조계사(주지 지홍)는 20일 해탈문 반대편 큰길가에서 조계사를 가리고 있는 건물을 20억원에 매입, 일주문을 세우기로 했다.

조계사는 세입자들이 나가는대로 시공에 들어가 내년 3~4월 경에 완공해 부처님 오신날과 월드컵 등 불자와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일주문의 건립을 시작으로 수송공원, 우정국 관광벨트와 연계된 불교문화회관 등을 세워 조계종 총본산의 위상에 걸맞는 외양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조계사는 그러나 공간사정 등으로 전통양식 그대로 천왕문, 해탈문을 줄이어 건립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영주 장애인 복지관 수탁

관장에 지현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지난 9일자로 경북 영주시에서 심의결정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체로 선정돼 23일 약정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 등 모두 네 곳으로 늘어났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말사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영주시사암연합회에서 운영을 맡게 된 영주장애인복지관은 대지 1,078㎡ 건물 1,007㎡(305평)로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실 사호교육실 강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관내 3,200여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장에는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이 내정됐다.

한편 경북도 지역에는 상주 냉림복지관, 문경 모전복지관, 구미 금오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이 연계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범적인 복지관 네트워크 운영 사례가 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3일 김태복 소장의 예방을 받고 '명예회복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 "金소장 명예회복 나서겠다"

불사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돼 피소된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조계종 전국신도회도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난 4월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불교단체들에 이어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대스님은 23일 총무원을 방문한 김태복 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과 만나 군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김장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이번 사건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애써온 김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불교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인만큼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복 장군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교계에서 적극적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9일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된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대법원, 법무장관, 국무총리, 국방위원장, 국회, 불자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40여 종단 총무원장 등 모두 240여 곳에 24일 발송했다. 한명우 기자

'흙의 마음 생명의 밥상'

부산정토회 3기 생태학교

부산정토회의 제3기 생태학교 '흙의 마음, 생명의 밥상'이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생태적 삶을 위한 먹거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위기로 다가온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아적 삶을 모색하는 생태학교는 법륜스님, 최한실 푸른누리공동체대표, 문성희 들뫼 자연음식 연구소장, 장택희 박사, 박병상 생태환경연구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강의가 눈길을 끈다.

특히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삶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숙박교육과 육식문화, 인스턴트 음식, 유전자 조작 음식 등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체험 교육 등 현재의 먹거리의 문제점을 피부로 체험하고 그 대안들을 차근 차근 찾아 보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마련되어 있다.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되는 생태학교는 '생태적인 삶이 곧 생활속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열린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051)557-6372

부산=천미희 기자

장기기증 뇌사자 납골당 추진

복지부 법 개정안에 반영

장기기증 뇌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들만의 묘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21일 "한명의 뇌사자가 각종 장기를 제공하면 최대 9명까지 생명을 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예우가 없어 장기 기증 뇌사자의 묘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의 죽음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사회가 예우를 해야 한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묘역을 제공할 때 뇌사자 가족에게 소정의 장례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장기를 이식한 뇌사자는 1998년 1백62명,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68명이었으며 보상금 · 의료보호 혜택 등을 제공하되 묘지는 제공하지 않는 의사상자(義死傷者)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뇌사자에 대한 예우기준을 정할 방침. 복지부는 다음달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한국전쟁 영령위령제

강원 종단연합, 6월5일

제 6회 비목문화제가 가곡 '비목(碑木)'의 발상지인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내달 3~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강원도 불교종단연합은 내달 5일 오전 11시 화천읍 붕어섬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제 및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제3 교구본사 신흥사와 제4 교구본사 월정사, 조계종 춘천승가회,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 천태종 강원도종무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괘불이운, 기원문 및 추모시 낭송, 천도의식, 방생 등으로 진행된다. (033)762-4848 김재경 기자

국고보조금 횡령방지 조사특위 구성 추진

참여불교 재가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3일 범어사 문화재 보수비 국고보조금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재가연대는 조계종과 중앙종회도 종무회의와 교구본사주지회의,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국민 앞에 사과함과 동시에 종단 차원의 국고보조금 현황조사 및 공개와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재가연대는 대정부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재 국고보조금 및 관련 특별교부금의 지급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벌이고, 이웃종교 개혁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부처의 참 모습을 본다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선사가 서구의 정신 문화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책.

숭산 선사 공안집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전세계에 사원과 선원을 개설하여 모든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의 길을 제시해온 숭산 선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365일 공안,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평창(評唱)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하는지,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뚜렷이 깨닫게 한다.

하루에 한 편씩 읽는 365일 禪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숭산 선사 공안집
무심 편집

값 12,000원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

불교개론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불교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론서

반야·유마경
이시다 이즈마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공(空) 사상, 실천 이념, 사회와 인간구제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화엄경
다마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대승불교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

아함경 이야기
마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6,500원
붓다가 여러 사람과 나눈 문답과 실천적 가르침.

미란타왕문경
이시카미 젠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그리스 왕 미란타와 승려 나가세나의 대화 기록.

열반경
다무라 요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붓다의 죽음을 중심으로 죽음 너머 영원의 문제를 밝힌 책.

벽암록
안동림 역주 / 값18,000원
뜨거운 여름, 함께 더워지기 쉬운 머리를 식히기에 딱 좋은 명상서.

붓다
무샤고지 사네아츠 지음 / 박경훈 옮김 / 값9,800원
붓다의 행적을 생생하게 되살려 기록한 전기(傳記).

법구경
김달진 옮김 / 값9,800원
붓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

부처님 말씀
성열 엮음 / 값13,000원
중생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불교성전
석해운 옮김 / 값9,800원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精進), 법우(法友) 등 네 장으로 나누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읽을 수 있게 한 성전.

불교대전
만해 한용운 편찬 / 이원섭 역주 / 값19,500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편찬한 불교 경전의 정수.

어린이 팔만대장경(전3권)
신현득 지음 / 문영미 그림 / 각권값5,000원
팔만대장경의 본생경에서 뽑아 엮은 동화.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E-mail : editor@hyeonamsa.com, 사이버 철학 카페 "소피의 세계" www.sophie.co.kr, 사이버 법정 www.i-solomon.co.kr, *전화주시면 도서목록을 보내드리고 회원으로 등록됩니다.